

AUTHOR 박건택 (Gon Taik Park)

TITLE 베자의 서간문에 나타난 칼빈상
(Image of Calvin according to the Letters
of Beza)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6 no.4 (Winter, 1989):138-161

베자(Beza)의 서간문에 나타난 칼빈상

朴 健 鐸
(역사신학)

칼빈의 뒤를 이어 제네바 교회를 떠맡아 개혁과 정통의 틀을 맞춘 베자(프랑스어 명으로 Théodore de Bèze, 테오도르 드 베즈이다)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몇편 안되는 전기가 도문드문 나오다가 1949년 팔복할만한 베자 전기가 Paul F. Geisendorf(가이제도르프)의 손으로 나오면서부터¹⁾ 그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물론 이런 베자 연구는 1871년 이래 프랑스 개신교 역사학회(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가 이리저리 흩어진 베자의 작품들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일에 제네바의 Droz(드로즈) 출판사가 또한 협력했다. 이 작업을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 가운데 Henry Meylan(앙리 멜랑)의 이름은 언급해 두고 싶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 1960년 베자의 서간문 모음집 제1권이 출간되었고 그후 1983년까지 11권의 분량에 이르고 있다.²⁾ 베자에 대한 총제적인 조명(일종의 생애와 사상)은 훗날로 미루고 여기서는 서간문(이후 Correspondance로 씀)을 중심으로(특히 프랑스어 서간문) 베자와 칼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Paul F. Geisendorf, *Théodore de Bèze*, Genève, Labor & Fides, 1949, 1967(2^e éd.).
2) *Correspondance de Théodore de Bèze*, recueillie par Hippolyte Aubert, publiée par H. Meylan, A. Dufour etc., Genève, Droz, 1960(자금까지 11권 출간됨).

I

칼빈과 베자 사이에 오간 첫번째 편지는 1550년 4월 9일로 나타난다.³⁾ 이 때는 베자가 로잔에 헬라어 교수로 막 자리잡은 뒤이다. 본래 베자는 Wolmar(볼마르)와 Bullinger(불링거)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삼았었다. 전자에게서 복음 사상을 빚겼다면 후자에게서 그는 깊은 회심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1548년(베자의 회심 연대)까지 베자에 대한 제네바 개혁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흔히 추측하는 대로 칼빈과 베자는 Bourges(부르주)에 있는 Wolmar의 집에서 처음 만났으리라.⁴⁾ Placards(격문)사건(1534)이 Wolmar와 칼빈으로 하여금 프랑스를 떠나게 했을 때, 베자는 여전히 프랑스에 남아 1539년까지 Orléans(오를레昂)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시(詩)였다. Wolmar와 Bullinger의 영향도 이 문인으로 하여금 그가 좋아한 시 세계에서 돌아서게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1548년 그의 작품 Juvenilia를 출판할 때까지 문인 사회로서의 파리 생활을 즐겼다.⁵⁾ 이렇게 두 명의 영적 아버지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종교개혁사상에 호의로운 감정을 가졌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숨기려 한 인물이었다. H. Meylan(앙리 멜랑)의 표현을 빌면 그는 ”칼빈으로부터 파리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엄청난 드라마 ‘Excuse à MM. les Nicodémites’(니코데모파에게 주는 변명)을 받은 문인들에 속했다.”⁶⁾

사실, 잠시 뒤에 언급하겠지만 칼빈은 1543년부터 여러개의 팔플렛을 출판한 바 있다. 1544년엔 이미 3년전 colloque de Worms(보름

3) *Correspondance*, t. I, p. 61.

4) 칼빈과 베자의 전기들을 참고할 것.

5) Juvenilia는 라틴어로 된 베자의 시 작품. Emile Droz 등의 노력 덕택으로, “정보라곤 전혀 없는 1543년에서 1548년 사이의 기간은 이제 더이상 미지의 땅이 아니다”(“Les débuts de Théodore de Bèze à Genève,” *Genava n.s.* 13(1965), p. 60.)

6) H. Meylan, “La conversion de Bèze ou les longues hésitations d'un humaniste chrétien.” *Genava n.s.* 7(1959), p. 122.

스 회담)서 칼빈이 라틴어로 작성한 시(詩)인 *Cantique*가 파리사회에서 읽혀졌는 바, 당시 베자가 이 글을 읽었다는 사실은 11년 뒤 칼빈의 *Epinicion*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Conrad Badius(콘라드 바디우스)가 밝히고 있다.⁷⁾ 그렇다면 당시 문학의 영광을 꼽았던 젊은 인문주의자 베자에게 칼빈의 글이 라틴어 시(詩)로서의 문학적 가치의에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Badius가 훗날 베자의 「Abrahams acrifiant」(제사하는 아브라함, 1550)을 출간하면서 첫판 서두에다 칼빈의 *Cantique*의 처음 부분을 프랑스문을 맞춰 독자들에게 선을 보인 사실이다.

Cil qui souloit sa jeunesse amuser
En vers lassifs et ithmes impudiques,
Se vient vers vous, ô lecteurs, excuser,
Et condamner ses fureurs poëtiques
Du temps passé : Subjects plus authentiques
Ie Saint Esprit ores luy fait chanter,
Trop mieux seans pour les bons contenter.
laissez donc là d'amours l'estude folle,
Et le venez maintenant escouter,
Rien ne dira qui vos cueurs ne console.

“호색적인 운과 추잡한 운율로
젊음을 즐겨 삼키던 이가
오 독자들이여, 그대들에게로 온다.
와서 옛날 자신의 시적 광란을
변명하고 정죄하도다.
성령은 이제 그에게
보다 진정한 주제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이는 선한 이들을 만족케 하기에

7) *Correspondance*, t. I, p.187.

너무도 적합하구나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어리석은
연구를 버리고
이제 와서 그의 말을 들으시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다.”⁸⁾

칼빈이 쓴 이 내용은 훗날 Clément Marot(클레망 마로)를 대신하여 시편을 번역하게 될 베자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하다. *Abraham Sacrifiant*의 서문에서 베자는 스스로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

Car je confesse que de mon naturel j'ay toujours pris plaisir à la poésie, et ne m'en puis encores repentir : mais bien ay-je regret d'avoir employé ce peu de grace que Dieu m'a donné en c'est endroict en choses desquelles la seule souvenance me fit maintenement rougir.

나는 천성적으로 언제나 시에 기쁨을 느꼈고 또 그것을 후회하지 않음을 고백한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은총을 지금 내가 유일하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⁹⁾

그러므로 칼빈의 미래의 후계자에게 있어서 *Cantique*의 내용은 선지자적 메시지였다.¹⁰⁾ 이것이 베자로 하여금 칼빈의 다른 팜플렛들을 진지하게 읽도록 이끌어갔음에 분명하다. 특히 *Petit Traité montrant que c'est que doit faire un homme fidèle connaissant la vérité de l'Evangile, quand il est dans les Papistes*(1543)과 *Excuse de*

8) *Abraham sacrificiant*, éd. K. Cameron, K.M. Hall et F. Higman, Genève, Droz, 1967, p.44.

9) *Correspondance*, t. I, p.200 *Abraham sacrificant*, p. 46.

10)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메세지 자체가 선지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자가 칼빈의 시에서 삶의 변화에 대한 호소를 들었다는 점이다.

Jean Calvin à Masseurs les Nicodémites(1544)이다. 칼빈의 이 신학적 팜플렛이야말로 베자를 회심시킨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칼빈주의적 신앙으로 회심한 뒤—이것도 역시 1548년에 가서야 이뤄진다—베자는 Wolmar가 있는 튜빙겐도 아니요, Bullinger가 있는 취리히도 아닌 칼빈의 제네바로 직접 오게 되는 것이다(1548. 10. 23). 이 세번째 영적 아버지는 차츰 베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점차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II

제네바로 칼빈을 찾아온 베자는 어제서 이내 로잔으로 가게되었는가?

Emile Droz(에밀 드로즈)의 말대로 “사실 이 새로 회심한 친구의 제네바 초기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¹¹⁾ 비록 Claudine Denosse(클로딘느 드노스)와의 은밀한 결혼이 공적인 인정과 축복을 받았고,¹²⁾ 그의 새 영적 아버지(최소한 베자 편에서)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 칼빈의 적인 Johannes Cochlaeus(요하네스 코클라우스)를 공박하는 팜플렛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¹³⁾ 베자는 그가 그토록 천변이나 “제네바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¹⁴⁾라고 외쳤던 그 제네바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베자와 같은 문인을 기다린 곳은 오히려 로잔 아카데미였다. 당시 칼빈의 심경을 알기 위해선 그가 Viret(비레)에게 쓴 편지를 들춰보면 된다. 베자를 로잔으로 보달라는 Viret의 요청에 답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쓴다 :

“De Normandie pourrait attester la fidélité avec laquelle je me suis employé déjà vous livrer Bèze; j'ai insitsté auprès

11) E. Droz, “Les debuts...,” *art. cit.*, p. 60.

12) Cf. P. Geisendorf, *op. cit.*, p. 35.

13) *Brevi et utiqis Zographia Joannis Cochlaeae Theodoro Beza Vezelio authore*(1549).

14) CO XVII, Col. 24, 와 Correspondance III, p. 168.

de lui, jusqu'à en être importun. Lorsqu'il sera revenu, je ne cesserai de l'encourager... Je considérerai le bien de l'Eglise sans penser à moi.

”내가 벌써부터 베자를 그대들에게 넘겨주려는 일에 얼마나 성실히 애써왔는지 De Normandie(드 노르망디)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베자 가까이에서 그가 귀찮아 할 때까지 간청했습니다. 그가 또 들리면 그를 고무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염두에 두렵니다.”¹⁵⁾

그리하여 1549년 10월 21일 베자는 로잔에 도착하고 그가 칼빈에게 보낸 최초의 편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쓰여진다. 이때로부터 베자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는 1558년까지 이 두 프랑스인들 사이에 오고간 편지는 32통이 남아 있다(이중 4통이 칼빈의 것임).

베자의 품은 비록 로잔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늘 제네바, 곧 칼빈 곁에 있었고, 칼빈도 비록 그를 떠나보내긴 했으나 그에 대한 애정을 언제나 간직했다. 베자에 대한 칼빈의 우정어린 표현은 제3자에게로 가는 편지에서 나타난다. R. Stauffer(스토페르)의 말대로 “그 어떤 것도, 그의 젊은 동료 베자가 아팠을 때, 한 프랑스 친구에게 보낸 편지보다 더 칼빈의 베자에 대한 애정—더욱이 이 애정은 그들의 동역 이전의 것이었다—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¹⁶⁾

“그대의 편지를 베자에게로 배달하니 그대의 사진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였고, 동시에 깊은 비애에 짓눌렸습니다. 사실, 어제 누군가 내게 알리기를 그가 페스트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협했던 막중한 위험에 단순히 안절부절할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연질색해져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나는, 그가 마치 죽거나 한것처럼 이미 애곡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염려를 제외하고는, 사랑에서 오는 내

15) COXIII, col. 379, A. Bernus, *Bèze à Lausaunis*(Lausanne, 1900, p. 21—22)에서 재인용.

16) R. Stauffer, 인간 칼빈(박전 택역), 정음출판사, 1983, p. 67.

고통이 그토록 심했던 것은 그를 위한 것외에는 없었습니다. 나를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부친처럼 존경했던 그를, 만일 내 편에서 사랑치 않는다면, 나는 확실히 비인간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금작스런 죽음이 내가 가장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인물을 이제 막 일을 시작할 시기에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을 본다면, 나는 교회가 앓을 수 있는 상실 이상으로 고통 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생명이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기를 바랍니다.”¹⁷⁾

여기서 이런 예들을 열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칼빈의 애정을 만들 어낸 이가 베자였음을 말하고 싶다: “나를 한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한 아버지처럼 존경한 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네바를 택한 것은 베자였다. 칼빈은 그의 팜플렛들에서 그의 미래의 동역자에게 개인적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베자가 칼빈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네바를 떠나 로잔으로 갈 때는 많은 주저함이 있었다.¹⁸⁾

베자는 로잔에 머물면서도 제네바의 개혁자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칼빈이 베자에게서 품은 가장 큰 희망은 아마도 Marot 가 끝내지 못한 채 남겨둔 시편 번역이리라.¹⁹⁾ 이 과업은 자신이 Abraham sacrificant 서문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최근 화심한 시인에게 매우 적합한 일이었다. 베자는 이 과업을 Louis des Masures (루이 데 마슈르)와 나눠가졌으며 이 사람은 복음에 가담하자 이내 몇

17) COXIV, col. 143—144. R. Stauffer, *ibid.*에서 재인용.

18) 사실 베자에게 있어서 제네바는 곧 칼빈을 의미했다.

19) Gaspard Laurent에 따르면 베자를 부추겨 이 중단된 과업을 계속도록 한 이가 칼빈이었다: “하루는 칼빈이 베자집에 들렸다가 그가 집에 없는 사이 침대 옆 탁자에서 프랑스어 운율에 맞춰 번역된 시편 16편 (Conserua me Domine)을 발견하고는 베자 몰래 갖고 나와 그의 동료들에게 읽혔다. 이 번역 전본이 그들을 너무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자에게 칭찬하지 말고 나머지 시편들도 그렇게 번역하도록 권유 했다.”(M. Jeanneret *Poésie et tradition biblique au XVI^e siècle*, Paris, 1969, p. 86에서 재인용).

편의 시편을 번역했다. 칼빈에게로 가는 베자의 첫번째 편지는 어찌면 이 젊은 시인에 의해 배달되었고 이 편지에서 베자는 그를 열렬히 친 거하고 있다.²⁰⁾ 어쨌든 베자는 시편 번역인 *Trente-quatre Psaumes de David nouvellement mis en rime françoise au plus près de l'hebreu par Th. de Bèze*(Genève, Crespin. 1551)를 출간하면서 칼빈의 바람에 응답했다. 그는 이 시편을 박해받는 교회와 그 교회를 보호하던 왕들에게 헌정했다. *Correspondance*의 편집자들이 밝힌 것처럼, “이것(=헌정시)은 프랑스 시인들에게, 세속적 주제들을 버리고 정신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바치라는 동일한 호소이다.”²¹⁾ 이 헌정시의 일부를 보자:

Sus donc, esprits de celeste origine,
Monstrez icy vostre fureur divine,
Et ceste grace autant deu imitable
Au peuple bas, qu'aux plus grands admirable.
Soyent desormais voz plumes adonnées
A louer Dieu, qui les vous a données.

“그러므로 자, 하늘에 기원을 둔
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의 신적인 열정을
보이고
또 천한 백성이나 가장 높은
큰 자들도
거의 모방할 수 없는 이
은총을 보이라.
이제부터 이것(=재능)들을 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로 그대들의

20) Cf. *Correspondance* I, p. 61—62.

21) *Correspondance* I, p. 207.

붓을 진력하여 휘둘을찌라.”²²⁾

칼빈은 이 시편 역자를 “진주”와 “보배”처럼²³⁾ 여겼다.

칼빈이 베자를 더 좋아하게 된 데는 이 시적 현정서문이 포교(propagande)적 작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있다. 현정서의 내용은 Abraham sacrificiant의 내용과 더불어 마치 베자가 파리시절에 읽었던 칼빈의 팜플렛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²⁴⁾ 진정한 우정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 지향할 때 꽂피는 법이다. 베자는 그의 스승의 예정교리를 받아들였다.²⁵⁾ 그는 그의 신학적 작품들 속에서 순수한 칼빈주의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신학적 작품들이 “문화적으로는 그의 시 작품이나 그 작품들에 상당하지 못한다”에도 그러나 이것들은 그의 생애와 사상 발전에 있어 Abraham sacrificiant이나 시편 번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⁶⁾ 신학적 주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칼빈과 베자가 교리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자.²⁷⁾ 이처럼 베자는 그의 토론 시절의 마지막 편지에서 불색당인 Davion(다비옹)이란 사람을 “우리 교회의 파괴자”로 칼빈에게 고발할 수 있었다.²⁸⁾

22) *Ibid.*, p. 210.

23) 칼빈은 1552년 초 Cany 부인에게 이렇게 쓴다: “그(=베자)는 하나님의 탁월한 재능을 받았고 그것을 교회의 공공 유익에 사용합니다. 그는 진정한 주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은 그를 사랑하고 또 보배처럼 여깁니다.”(CO XIV, col. 453)

24) Cf. A. Sayous, *Etudes littéraires sur les écrivains français de la Réformation*, Paris et Genève, 1841—1842, t. I, p. 280.

25) Correspondance I, p. 81: “칼빈이 곧 출판될 De aeterna praedestinazione(영원한 예정에 대하여)에 대한 의견을 들어오자 베자는 그의 스승의 교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표명한다.” 베자는 스스로 1555년 예정의 tabulae(도식)을 출간한다(Cf. Correspondance I, p. 169).

26) Geisendorf, *op. cit.*, p. 64.

27) 우리는 베자가 칼빈 편에서 불색, 카스텔리옹, 그리고 극루티파들과 싸웠음을 알고 있다.

28) Correspondance II, p. 210.

III

베자는 1558년 가을(10월 15일), 그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던 제네바로 오게 된다. 그리고 첫 편지는 1560. 8. 25. 자로 된 프랑스 Nérac(네락)에서 칼빈에게 보내는 프랑스어 편지로 시작된다. 이로부터 칼빈이 죽던 때(1564)까지 둘사이에는 57통의 편지(이중 40통이 베자의 것임)가 오갔다(현재 남아 있는 숫자로). 사실 베자는 제네바로 와서 제네바 아카데미의 최고직에 임명되고 얼마 안 있어 여러번 자신의 고국 프랑스와 독일 지방을 여행했다. 1560년은 Nérac에, 1561년은 Poissy(포아씨)에, 1562—1563년은 첫 종교전쟁으로 여러 지방을 다녔다.

1560년 Amboise(앙보아즈)에서 개신교 구테타 음모 사건이 터자 베자는 이음모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Nérac에 파송되었다.²⁹⁾ Nérac과 Genève 사이에 두통의 편지가 오갔다. 베자는 프랑스어로 썼고, 칼빈은 타틴어로 답했다.³⁰⁾ 내용인 즉 개신교당이 “지방 봉기를 통해 프랑스 남부, 곧 Bordeaux(보르도)에서 Lyon(리옹)까지를 불태우려 한다는 것”³¹⁾이다.

그런데 일이 잘못 풀려나갔다. 이 음모사건은 사전에 발각되어 많은 수의 개신교도들이 참혹히 죽었던 것이다. 베자는 은밀히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칼빈이 베자에 대해 품은 격정과 열려는 Des Gallars(데 갈라르)에게 쓴 한 편지에 나타난다:

29) E. Trocmé는 베자의 역할을 “음모를 꾸미는 궁중 사제”(aumonier conspirateur)라고 했다(“L'ascension de Bèze”) 1549—1561), au miroir de sa correspondance,” *Journal des Savants*, p. 620). 이 표현은 P.F. Geisendorf가 이 파송 일부에 부여한 종교적 해석(*op. cit.*, p. 120—123)과 R.M. Kingdon이 제시하는 순전히 정치적 해석(Geneva and the coming of Religion in France, 1555—1563, p. 75—76)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30) Correspondance III, p. 63과 67.

31) *Ibid.*, p. 64, n°2.

L'absence de Bèze me pèse... Ce qui me grève surtout, c'est que, poussé par la nécessité, je n'ai pas su ménager la vie d'un ami si fidèle et d'un homme si nécessaire.

“베자가 없는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 특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토록 신실한 친구요 그토록 필요한 인물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³²⁾

Nérac에서 돌아온 9개월 뒤, 베자는 파리 교회와 프랑스 개신교 대 영주들로부터 편지들을 받는다. 그는 그 곳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을 한 회담(colloque)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받는다. 당시 프랑스는 François(프랑소아) II세의 죽음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Guises(기즈) 일당이 물러가고 Catherine de Médicis(카트린느 드 메디치) 가 9살 반짜리 왕인 Charles(샤를로) IX세의 섭정으로 왕권을 잡았다. 바로 이 왕의 모친이자 왕후였던 Catherine가 양당을 연합시키기 위해 회담을 소집한 것이다. 이 회담은 파리 근처 Poissy에서 열렸다 (Colloque de Poissy).

그런데 어째서 파리 교회와 Louis de Condé(루이 드 콩데), Coligny(콜리니) 제독, 그리고 Navarre(나바르)의 왕은 칼빈이 아닌 베자를 초청했을까?³³⁾ 어쩌면 프랑스 교회 개혁을 위한 의교적이고 화해적 역할이 베자에게 적합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해왔다. 칼빈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칼빈의 초청을 방해한 주된 이유는, Correspondance의 편집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인물을 매우 큰 위험을 무릅쓰게 할 두려움” 때문이었다.³⁴⁾ 결국 베자는 프랑스 왕국으로 가서 “큰 자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그리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해 식사할 시간도”³⁵⁾ 없을 정도였다. E. Trocmé(트로크메)에 따르면 “바로 이 1561년 말에 베자의 활동 경력은 그 절정에 달했다: 바야흐로 그

32) CO XVIII, col. 214.

33) Cf. *Correspondance* III, p. 116—120, p. 121—123, p. 128—129.

34) *Correspondance* III, p. 139, n°23.

35) *Ibid.*, p. 134.

는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는한 프랑스 교회의 개혁자가 될 참이며 칼빈은 다만 그 선구자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³⁶⁾ 그러나 우리 주인공들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가 변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우정 외에도 베자에게 있어서 칼빈은 선지자, 곧 당대의 선지자임을 말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궁에 도착한지 삼일 후, 베자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프랑스어로 된 긴 편지를 통해, 칼빈에게 이야기 한다.³⁷⁾ 모든 상황을 말한 뒤 칼빈의 오른팔인 그는 당시 개신교 우두머리에게 언제나 충성스런 자기 감정을 알리기를 잊지 않는다 :

Si Dieu faisoit ce bien à son eglise de vous y veoir, alors oseroys-je bien esperer certaine victoire et le plus grand bien que jamais advint à ce rozaume Et de faict, je n'y voy point de danger, mais je n'ay encores peu obtenir ce point, auquel toutefois je ne cesseray de tascher de parvenir jusques à ce que toute esperance m'en soit ostée, et vous prie vouloir pour le moins vous tenir toujours prest pour moyenner un si grand bien.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대를 보는 축복을 자신의 교회에 베푸셨다면, 나는 갑히 확실한 승리를 바라고 또 이 왕국에서 결코 있어 보지 못한 가장 큰 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아직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까지는 끊임없이 얻어내려 애쓰는 그 지점까지 아직 도달치 못했습니다. 부탁하옵기는 최소한 언제나 그토록 큰 복을 나눠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쓰기를 :

36) E. Trocmé, art. *cit.*, p. 622.

37) *Correspondance* III, p. 134—139.

Singulierement, Monsieur, puisqu'il plaist à Dieu se servir de ce tant paovre et inutile instrument en un si grand ouvrage, je m'asseure que vous ne me refuserez ny prieres ny conseil, qui est la principale assistance en laquelle je me confie, après Dieu.

“특별히 참으로 이 가련하고 쓸모없는 도구를 이 큰 일에 사용 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는 그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조언하기를 거절치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의뢰하는 주된 도움입니다.”³⁸⁾

이러한 감정은 베자가 5일 뒤 칼빈에게 쓰는 편지에서 다시 나타난다 :

Ah! combien de fois, mon père, ce jour et de nuit, je vous appelle... Mais la prière des absents ne sera pas vaine, quand bien même j'en suis réduit à ne pouvoir jouir de votre présence à l'heure où elle me serait si utile.

Si vous avez là-dessus un conseil à nous donner, faites le, je vous en supplie le plus tôt possible pour que nous ne péchions pas par imprudence.

Enfin, mon père, puisque vous ne pouvez pas encore être des nôtres, par vos conseils et de toute manière dirigez-nous de loin comme des enfants. Car je vois et je sens tous les jours que nous ne sommes que des enfants, par la bouche desquels, je veux l'espérer, Dieu manifestera son admirable sagesse.

“아! 내 아버지여,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그대를 불렀는지요... 당신의 임재가 그토록 유용할 시기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때에라도, 부재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38) Ibid., p. 136-137.

만일 그 곳에서 우리에게 줄 조언이 있다면, 조언하시되 가능한 한 빨리 해주셔서 우리가 경솔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여,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그대의 조언과 기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어린애들처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나는 우리가 어린애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또 날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다만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어린애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십사하는 것입니다.”³⁹⁾

베자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답은 성찬 문제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사실 성찬은 16세기 정치·종교적 연합들에 있어 “불화의 씨”였다.⁴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양 당사이에 일치의 소망이 있었다. 베자는 Palatinat(팔라티나) 선거후에게 보고하면서 쓰기를, 마지막회의때 “매우 큰 혼란과 무질서가 있어 아무것도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후 “우리는 각 당사이에 5명씩 대표를 뽑아 두번의 토론을 거쳐, 성찬 문제에 대한 몇가지 점에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⁴¹⁾라고 했다. 그런데 “장시간을 이야기한 한 예수회파 사람”⁴²⁾의 갑작스런 개입이 이 소망을 무(néant)로 돌려버렸고 이윽고 가톨릭 주교들은 회답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개신교의 지도자는 프랑스 왕의 섭정 결례 남아서 한 칙령(Edit de Janvier)을 작성해 했다.⁴³⁾ 결국 Vassy(바씨)의 학살 사건과 뒤따른 종교 내란은 그로 하여금 1563년 5월까지 프랑스에 머물게 했다.

39) Ibid., p. 143-144.

40) Poissy 회답과 관련한 베자의 성찬신학에 대해서 Cf. J. Raitt, *The eucharistic theology of Theodor Beza : Development of the Reformed doctrine*, Chambersburg, 1972, p. 31-41.

41) *Correspondance III*, p. 18.

42) Ibid.

43) *Correspondance IV*, p. 249.

IV

베자가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조국”(communem omnium piorum patriam)⁴⁴⁾인 제네바로 돌아온지 일년 후, 칼빈은 죽는다. 이 때부터 칼빈의 상은 그의 영적 아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다. 사실 베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외친 엘리사의 고통의 외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⁴⁵⁾ 이것이야말로 선지자 상이 아닌가? 게다가 칼빈 자신이 선지자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⁴⁶⁾ 베자가 쓴 「칼빈 전」(Vie de Calvin)은 본주제와 일부만 관계한다.⁴⁷⁾ 칼빈이라는 개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다. 사실 선지자들은 참 신앙을 위해 싸웠고, 싸우고 있으며, 또 싸울 것이다. D. Ménager(메나제)의 말처럼, “투쟁의 어휘가 하나님께서 칼빈의 모든 행동의 기원이심을 망각치 못하게 한다.”⁴⁸⁾ “이 위대하고 진정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 칼빈이 투쟁한 것은 교리와 미풍양속을 부폐시키는 “영적 악녀”에 대항해서라면, 군주들과 기사들은 “교회의 지상의 원수들”과 싸웠다. Coligny에게로 가는 편지로 된 서문에서,⁴⁹⁾ 베자는, 주님께서 프랑스의 제독을 그 시대의 “기드온과 삼손같은 인물(종 하나님)”로 세우셨다고 말한 뒤, “교회의 가장 주된 원수들이 결코 혈파 육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⁵⁰⁾ 지상의 폭력이 Coligny의 힘과 용맹으로 퇴치어야 했다면, 또한 동시에 다른 대적들과도 싸워야 했

44) Correspondance V, p. 56.

45) COXXI, col. 118.

46) Cf. R. Stauffer,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1인칭 화법”, 칼빈과 설교 (박건백 편집), 나비, 1988, pp. 119—181.

47) D. Ménager에 따르면 “베자에게 있어 칼빈에게 충실하는 계일 좋은 방법은 칼빈의 개인적인 상을 지우고, 그럼으로 그의 생애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케 하는 것이다.”(“Théodore de Bèze, biographe de Calvin,” in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XLV, 1982, p. 237).

48) Ibid.

49) Correspondance IV, p. 15—25.

50) Ibid., p. 16.

다.⁵¹⁾ 이 영적 전쟁은 “외관상 그다지 두려워 할 것이 없어 보이니,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로운 것이다.”⁵²⁾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를 맡는 자들은 누구인가? 베자는 말한다 :

Il n'y a point de doute, que les capitaines et conducteurs pour faire ceste guerre ne soyent ceux que le Seigneur a ordonnez pasteurs, docteurs et anciens de son Eglise, pour gouverner le royaume du Fils de Dieu... Il se trouvera tant et plus de telles gens, si on ne considere que le seul nom, mais si on s'enquiert plus avant de ce qui y doit estre, il s'en trouvera bien petit nombre.”

“이 전쟁을 치루기 위한 장수들과 지휘자들은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독사와 교사와 장로로 세우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이들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만 고려한다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작 합당한 인물인가를 조사한다면 매우 적은 수 밖에 찾지 못할 것입니다.”⁵³⁾

이 “매우 적은 수”에 베자는 살아 있는 이들 중에서 Bullinger, Farel, Viret를 꼽고, 최근 죽은 여러 인물들, 곧 Melanchthon(멜란히톤), P. Martyr Vermigli(베르미글리), Musculus(무스클루스) Hyperius(하페리우스) 등을 열거한다.— “오호라, 이 어떤 인물들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던가?” 계속해서 칼빈에 대해 베자는 이렇게 말한다 :

Et neantmoins la presence d'un seul Galvin nous rendoit toutes ces pertes aucunement plus tolerables, d'autant que la jouissance que nous avions d'un tel personnage nous servoit

51) Ibid.

52) Ibid.

53) Ibid.

come de medecine pour alleger tous les maux precedens, presedens, quelques geans qu'ils fussent. Mais voici nos pechez qui le nous ravirent pareilement l'an passé, avec telle perte de toute l'Eglise qu'il est impossible que nul la puisse estimer, sinon ceux qui sont tesmoins de ses labeurs et travaux pour y avoir esté prese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혼자만 있어도 이 모든 이들의 상실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인물이 있다고 하는 즐거움이 전에 있던 모든 악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든지간에—을 경감시키는 의약과도 같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작년,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손실로서 그의 수고와 노력의 중인으로 그의 곁에 있던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손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⁵⁴⁾

Coligny에게 주는 베자의 이 헌정 서간문은 비록 칼빈의 탄생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베자의 「칼빈전기」의 첫 부분을 잘 요약해 놓은 듯하다.⁵⁵⁾

베자에게 있어 “그 모든 생애의 멘류관이요 장식과도 같았던”⁵⁶⁾ 칼빈의 죽음은 세계에 그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한편으로 “말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매우 아름답고 향기나는 본”을 남겨주었고, 또 한편으론 “그토록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가 담긴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 놓았다.⁵⁷⁾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베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프랑스 재독에게 에스겔 선지서에 대한 칼빈의 미완성 강의(주석)를 헌정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선 저자(칼빈)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프랑스 개신교의 지도자(베자) 역시, 선지서에 대한 고찰이 특별히 국가적 인물에게 유용

54) *Ibid.*, p. 16—17.

55) 우리가 말하는 것은 *Vie de Calvin* 초판(COXXI, cols. 21—29)이다.

56) COXXI, col. 40.

57) *Correspondance N.*, p. 17.

하고 또 천거할만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베자의 말을 듣자 :

Or estant au milieu de ces combats, il n'y a rien qui vous puisse donner telle asseurance, come fera la comparaison des escrits des Prophètes avec les histoires.

“이런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선지서와 역사서의 비교가 가져다 주는 그런 확신을 그대에게 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⁵⁸⁾

심지어 그는 “거룩한 역사전 세속사전간에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종대사에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조언을 묻지 않고 무엇인가 포고를 내리는 국가”⁵⁹⁾란 없었다는 일반적 사실을 강조한다. 베자는 Poissy 회담이라는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칼빈이 「다니엘 주석」을 프랑스 교회에 헌정하면서 이 회담을 예언했음을 상기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진실로 그(=칼빈)는 선지적 정신으로 이것을 선포했다.”⁶⁰⁾고 한다. 제네바의 대 개혁자는 선지자였다. 그가 “이 선지서들”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선지서들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칼빈은 “모든 고대인들과 당대의 인물들을 훨씬 능가했다.”⁶¹⁾ 베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Et pour ce, combien que quelques foys je ne suis de mesme oppinion avec lui en certains pointz, non pas en ceux qui concernent la doctrine mesme (laquelle j'ay tousjour asperceue es escriptz de cest-homme-là très pure et très solide, si jamais elle l'a été en aultre expositeur quelconque), mais en l'explication de certains passages. Toutesfoys, quant à ses commentaires, mon avis est, suivant l'opinion de Cicero, en une

58) *Ibid.*, p. 19.

59) *Ibid.*

60) *Ibid.*, p. 20.

61) *Correspondance N.*, p. 266.

maniere d'escrire fort dissemblable touchant les commentaires de Jules Cesar, assavoir qu'il a destourné par estonnement les plus sages homes d'escrire.

”비록 내가 이따금 몇가지 점에서, 물론 교리 자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나는 언제나 이 인물에게서 매우 순전하고 매우 확고한 교리를 파악했으며, 이것은 결코 다른 주석가들에게서 얻지 못했었다), 다만 몇몇 구절들의 표현상, 그와 같은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석들에 대한 내 의견은 줄리우스 씨저의 주석과 관련해서 매우 다른 기법을 가졌던 키케로의 견해에 따라, 그(=칼빈)는 가장 혁명한 인물들이 놀라서 쓰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것이다.”⁶²⁾

V

칼빈에 대한 기념의 필요성이 그의 충실했던 후계자로 하여금 1566년 「칼빈 작품 모음집」(Recueil des opuscules, c'est-à-dire, Petits traictez de M. Jean Calvin)을 출간해 했고 그는 이것을 Renée de France(르네 드 프랑스)에게 헌정했다. 이전의 현정문들(Coligny에게와 Condé에게)과는 달리 이 Ferrara(페라라)공작 부인에게 드린 헌사는 칼빈의 정신과 성격이 어떠했나를 보여준다.⁶³⁾ 베자의 친술을 따라가 보자. 논쟁에 관하여 칼빈은 대단한 재질을 보였는데 특히 통찰력, 민첩한 정신, 그리고 공명정대함에서 그리했다. 하지만 칼빈은 분노를 잘낸 인물이 아니던가? 실제로 그는 여러번 분노의 기질을 드러냈다.⁶⁴⁾ 부처는 칼빈의 이 못된 성질을 비난한바 있었다. 이 성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계속되는 불안가운데서 밤새 뒤치락거렸고 3일동안 완전히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⁶⁵⁾ 칼빈 자신도 이 점을 인

62) *Ibid.*, p. 267.

63) *Correspondance VII*, p. 97—103.

64) Cf.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II, Lausanne et Neuilly, 1899—1927, p. 390—406.

65) *Ibid.*, p. 464

정했다:

Pour avouer la vérité, aucune lettre avec mes vices très grands et très nombreux, ne m'est plus difficile qu'avec cette impatience. Cartinement je fais quelques progrès, mais je n'en suis pas encore arrivé au point d'avoir pleinement dompté cette bête féroce.

진실을 토로하자면, 제 아무리 크고 많은 내 악덕들을 담은 어떤 편지도 이 참을성 없는 성질을 말하는 편지보다 더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내게 얼마간의 진보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 맹수를 온전히 길들이는 데 이르지는 못했습니다.”⁶⁶⁾

Baudin(보뒤앵)이 칼빈과 부처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사용하면서 (그 이후 이 편지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 분노의 성격을 들춰냈을 때, 세네바 개혁자는 베자의 응답(Resposo ad F. Baldvini)에 서문을 쓰면서 “이 비난과 자신의 분노적 기질을 인정하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⁶⁷⁾

베자는 칼빈의 이 맹렬한 성격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것을 정당화한다. “온유와 겸손”이 “기독교의 큰 덕성”임과 “특히 대립적 논쟁가운데서 결계를 지킨다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Je ne veux point nier aussi que celuy dont je parle n'ait été d'une nature vehemente et fort prompte à s'esmouvoir, voire mesmes quelque fois moins patiente qu'il n'eust été à désirer, ce que luy-mesme cognoissoit mieux et approuvoit moins que homme du monde, come peuvent tesmoigner tous ceuxqui ont eu ce bonheur du Seigneur de le cognoistre familierelement, mais

66) *Ibid.*

67) D. Ménager, *art. cit.*, p. 248.

j'ay beaucoup de choses à repliquer sur ce point, qui seront, comme j'espere, trouvées raisonnables.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분이 맹렬한 성격과 매우 쉽게 홍분하는—비록 예로 그가 바라는 만큼 잘 참아내지 못하지만—성격을 갖고 있음을 결코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그를 친밀히 아는 주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듯이,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며 세상 사람 보다는 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점에 대해 응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바라는 것처럼, 매우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⁶⁸⁾

우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성격을 형성 내지는 변화시키면서 사용하시되, “마치 일꾼이 그 도구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가 하기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 아브라함도 이런 식으로 그 인격이 형성되었다. “별자리나 교육, 또는 타고난 기질”이 이 위대한 족장의 모든 덕성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관련된다.⁶⁹⁾ 이 은총의 사역은 아브라함의 승계자들과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활동하되,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 야곱, 솔로몬, 히스기야 처럼 태어나면서 놀라우리만큼 온유하고 평온한 성격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아사, 여호사밧, 요시아 등처럼, 매우 맹렬한 정신으로 형성되었다.”⁷⁰⁾ 또 어떤 이들은 “요셉, 모세, 다윗 처럼 거친 자와 온유한 자 사이에서 훌륭하게 완화된 기질”을 가진 중도형들도 있다. 사울과 요아스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되, “어떤 때는 그 이상할 수 없을 만큼 온유하게, 어떤 때는 떨하자면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맹렬하게, 또 어떤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사정을 두지 않을 정도로 거칠게 하신 것이다.” 베자는 이렇게 단언한다:

68) Correspondance VII, p. 98.

69) Ibid., p. 98—99.

70) Ibid., p. 99.

Ce qui n'est point advenu, qu'ils fussent ainsi veribles ou tranportez par quels passions particulières, ains d'autant que l'Esprit de Dieu les esmouvoit selon la circonference des temps et des personnes.

“그들이 그토록 다양하고 또 특별한 열정으로 끌려갔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시대와 인물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⁷¹⁾

신랄한 말들은 사실 성경 도처에 있고 또한 초대 교회 당시에 나온 글들 가운데도 산재해 있다. 그 증거의 예로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세례 요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도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제네바의 개혁자에게 새 교회론의 기초를 준 바울 이후에 루터와 칼빈이 그 항렬에 꺼인다. 베자는 말한다 :

Qui s'esmerveillera donc, si Martin Luther au commencement, et Jean Calvin depuis, ayans affaire à telles bestes, se sont queques fois eschaffez en telle vehemence?

“그리므로 만일 처음에 마틴 루터가 그리고 다음에 요한 칼빈이 그런 짐승들을 상대하면서 이따금씩 이런 격렬함에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놀라(감탄)하겠습니까?”⁷²⁾

거룩한 열심과 정당한 분노, 이것은 칼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것은 그의 교리와 삶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 긴 문장을 인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Car quant à la doctrine, plus on l'approchera de la pierre de touche, plus elle sera trouvée des plus vrayes et pures, et quant à la vie, je say fort bien que sil y aeu de nostre temps

71) Ibid.

72) Ibid., p. 109.

homme eslogné d'ambition, d'avarice, de folle opinion de soy-mesmes, de haine et malveillance en quelque affaire particulier pour quelque chose de ce monde (qui sont les passions qui transportent volontiers en mauvaise colere les plus patiens), et au contraire, s'il s'est trouvé pasteur oubliant soy-mesme et ne se souciant des commoditez et avantage de ceste vie presente, mais bien jaloux de l'honneur de Dieu, ami de verité, ennemi de tout vice, et sur tout des faux docteurs et sophistes, ç'a esté celuy duquel je parle maintenant, dont je ne puis alleguer, ni meilleur, ni plus certain tesmoignege que tout le cours de sa vie.

“사실 교리에 대해서 말해보자. 우리가 그 교리를 지금껏 결에 가까이 놓으면 놓을수록, 그 교리는 더욱 참되고 순수한 것으로 발견된다. 또 그의 삶에 관해 말해보자. 우리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세상 것들(이것들이 이방인들을 기꺼이 못된 분노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을 위한 야심, 인색, 스스로의 어리석은 생각, 증오, 악의 등과 그토록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잊고 현재의 삶의 현이성과 이익을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의 친구요, 모든 악과 모든 거짓 교사들과 체변론자들의 대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그의 생애의 전 과정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⁷³⁾

지금까지 우리는 배자가 칼빈에 대해 품은 인상을 그의 서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은 영적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로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10 살 위의 선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교리와 통찰력으로 시대를 이끌어간 선지자. 배자의 이러한 칼빈 상은 정치적

으로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야심에서 정략적으로 이뤄진 것이 결코 아니다. 칼빈의 글과 사역을 읽고 지켜 보면서 점차 깊이 심어진 것이다. 이렇게 깊게 심어진 인상이 그로 하여금 때로 「칼빈 칭송」으로 이끌어 갔는지도 모른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훌륭히 보일 수 있다. 그리하여 칼빈의 노를 발하는 성격도 합리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자는 단순히 「칼빈 칭송」의 차원의 글을 넘겨 놓지 않았다. 그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 칭송」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 말로 칼빈의 생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배자가 품었던 칼빈상은 오늘날도 그를 흠토하는 후예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칼빈상은 단순히 「칼빈 칭송」에서 끌나서는 안되며 그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73) Ibid.